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 생산·소비는 증가, 투자는 감소

○ 2005년 6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1%, 4.4% 증가하였고, 도·소매 판매는 3.0% 증가하였으나, 투자는 2.8% 감소하였음.

- 6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14.5%), 자동차(19.6%), 영상음향통신(5.8%)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2/4분기로는 전년동분기대비 4.0% 증가하였음. 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 및 통신기계 등에 대한 투자감소로 2.8% 감소, 2/4분기로는 1.5% 증가(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등 다른 업종에서는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2/4분기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분기대비 2.4% 증가(그림 2 참조).

-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 및 연료소매 모두 증가하여 3.0% 증가, 2/4분기로는 2.7% 증가(전월대비 2.3% 증가).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보다 0.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6%로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하였음(그림 3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6월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6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1.2	6.1	3.1	3.0	7.7	11.3	12.7	12.9	11.4	6.7	3.8	4.0	4.1
	제조업 생산	11.2	5.7	2.9	3.0	8.0	11.9	13.2	13.3	11.6	7.0	3.5	3.9	4.1
	출하	10.8	4.4	2.8	2.5	6.7	10.0	10.8	11.0	10.1	5.8	3.5	3.5	4.4
	수출	12.2	7.3	9.9	11.2	17.6	21.9	23.4	20.7	20.4	15.0	10.9	6.7	8.2
	내수	10.0	2.8	-0.7	-2.1	0.9	3.7	3.8	5.4	4.1	0.3	-1.2	1.4	2.0
	서비스업 생산	8.0	1.9	0.9	0.5	0.6	2.1	0.9	1.6	-0.5	-0.2	0.7	2.4	2.6
소비	도소매 판매	7.1	1.7	-1.5	-2.3	-2.0	-0.2	-0.6	1.2	-1.1	-1.4	-1.0	2.7	3.0
투자	설비투자	13.8	2.6	0.2	-6.4	-5.3	-2.0	3.2	7.5	3.8	0.1	4.0	1.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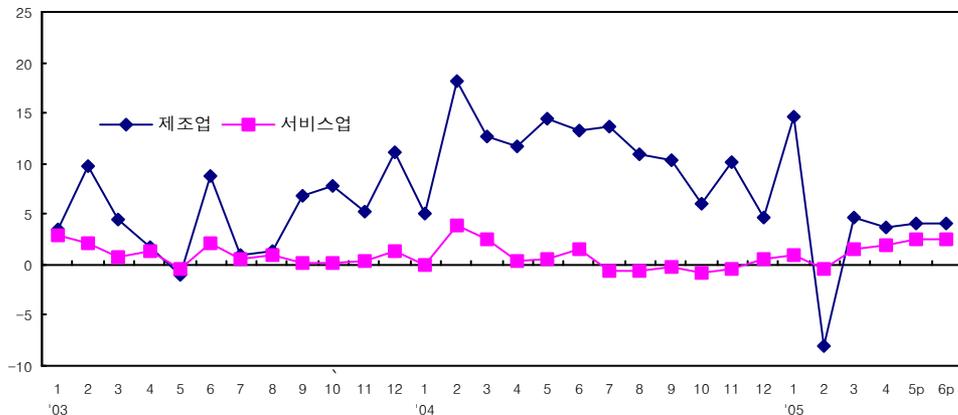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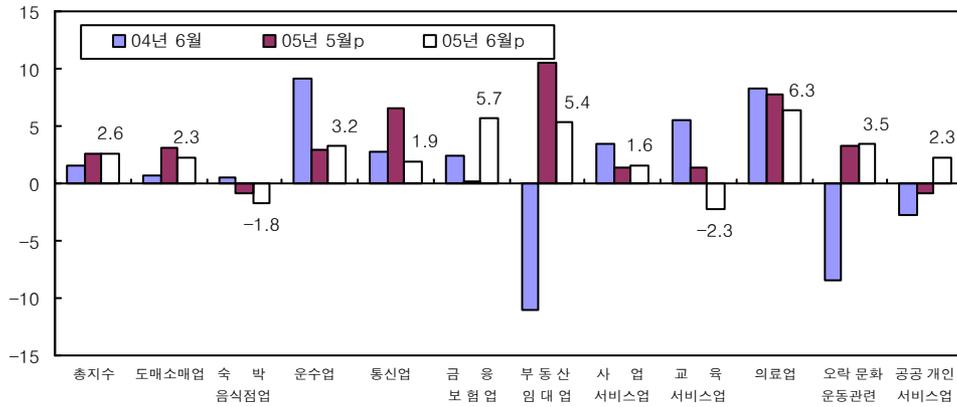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5년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2005. 7.

_____, 『2005년 6월 및 2/4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7.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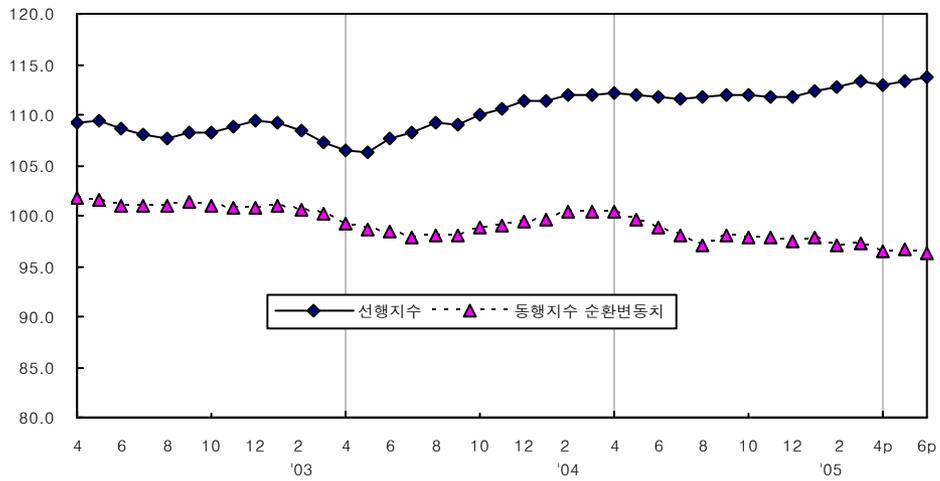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단위 : 200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 둔화

- 2005년 7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0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7천명(1.9%)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061천명으로 251천명(1.8%)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011천명으로 206천명(2.1%) 증가함.
- 2005년 7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75.3%)이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50.7%)은 0.2%포인트 상승으로 여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짐.
- 2005년 7월 중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증가
 - 남성의 고용률은 72.3%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49.1%로 0.2%포인트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고용률 역시 증가세가 지속됨(그림 4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3/4분기
경제활동인구	23,035 (2.5)	23,576 (2.1)	23,482 (1.7)	23,616 (1.4)	23,575 (1.8)	23,221 (0.8)	24,004 (1.8)	24,051 (2.0)	24,123 (1.8)	24,072 (1.9)
참가율	61.3	62.6	62.2	62.6	62.3	61.1	62.7	62.8	62.9	62.7
취업자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750 (1.3)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199 (2.0)	23,246 (1.9)	23,184 (1.9)
고용률	58.8	60.4	60.0	60.3	60.1	58.5	60.4	60.6	60.6	60.4
실업자	931	831	835	865	842	975	878	852	878	888
실업률	4.0	3.3	3.6	3.7	3.6	4.2	3.7	3.5	3.6	3.7
비경제활동인구	14,542 (-1.2)	14,097 (-0.8)	14,289 (0.0)	14,128 (0.3)	14,273 (-0.3)	14,789 (1.7)	14,271 (1.2)	14,223 (0.9)	14,245 (1.1)	14,33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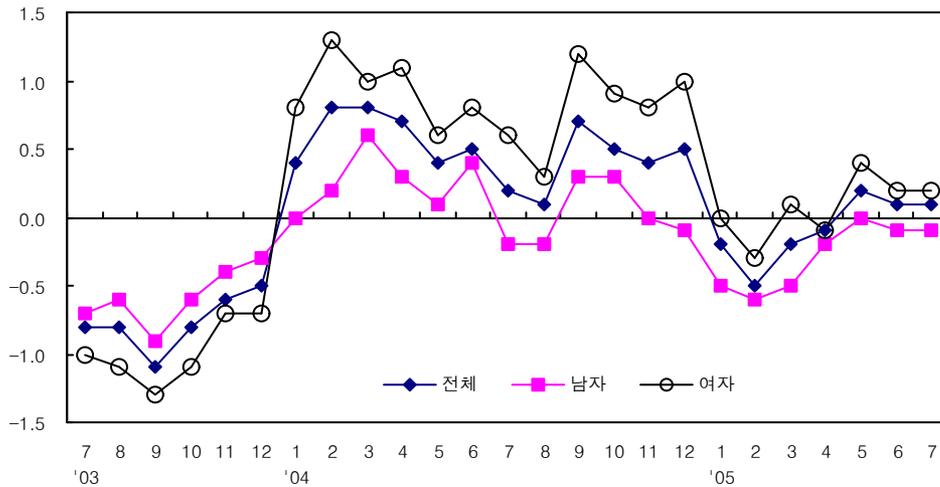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7월 고용동향』, 2005. 8.

[그림 4] 고용률 변화

(단위 : %포인트,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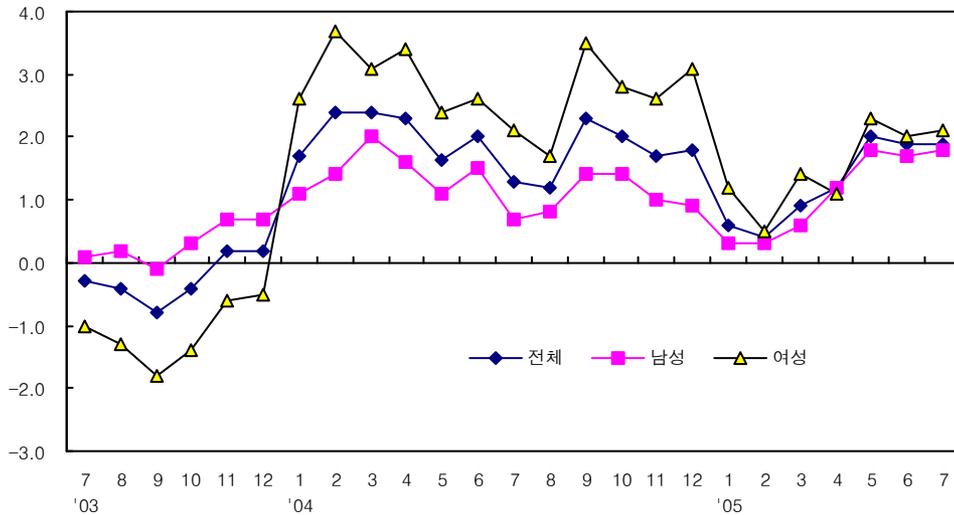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05년 7월 중 취업자는 23,1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4천명(1.9%)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취업자는 13,4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6천명(1.8%), 여성취업자는 9,6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8천명(2.1%)이 증가하여 여성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짐(그림 5 참조)
 - 2005년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7월 중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짐.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39세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반면, 50~59세의 취업자 증가가 계속됨.
- 2005년 7월 중 실업자는 8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2.6%)이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 남성실업자는 567천명(14천명, 2.6%), 여성실업자는 321천명(8천명, 2.7%)이 증가함.
 - 실업률은 남자와 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동일함(남성: 4.0%, 여성: 3.2%).
- 2005년 7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3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1.4%) 증가
 -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는 1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명 증가로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가며 2001년 2월(149천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
 - ※ 구직단념자 추이: 109천명(2004. 7) → 135천명(2005. 2) → 109천명(2005. 3) → 103천

명(2005. 4)→114천명(2005. 5)→114천명(2005. 6) →141천명(2005. 7)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

- 2005년 7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41천명, 5.1%), 건설업(84천명, 4.7%), 농림어업(81천명, 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천명, 2.3%)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79천명, -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7천명, -0.8%) 등에서는 감소함.
 - 2005년 2월 이후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짐(그림 6 참조).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고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4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04년 7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3/4분기
전 산업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750 (1.3)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199 (2.0)	23,246 (1.9)	23,184 (1.9)
농림어업	1,609 (-5.3)	1,967 (-7.5)	1,933 (-7.5)	1,924 (-8.5)	1,789 (-4.9)	1,525 (-5.2)	2,018 (2.5)	2,061 (4.0)	2,056 (3.4)	2,005 (4.2)
제조업	4,278 (2.6)	4,308 (1.7)	4,278 (2.7)	4,311 (2.2)	4,296 (1.2)	4,260 (-0.4)	4,257 (-1.2)	4,249 (-0.9)	4,251 (-1.5)	4,233 (-1.8)
건설업	1,762 (1.6)	1,864 (0.6)	1,790 (-1.7)	1,786 (-3.1)	1,864 (0.6)	1,692 (-4.0)	1,897 (1.8)	1,909 (2.7)	1,931 (3.5)	1,870 (4.7)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912 (-0.1)	5,866 (0.5)	5,819 (0.2)	5,887 (0.1)	5,853 (0.0)	5,835 (-1.3)	5,796 (-1.2)	5,791 (-1.2)	5,806 (-1.0)	5,840 (-0.8)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6,362 (7.3)	6,542 (8.0)	6,617 (5.8)	6,627 (6.3)	6,711 (6.1)	6,714 (5.5)	6,907 (5.6)	6,938 (5.9)	6,950 (5.6)	6,968 (5.1)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63 (-0.2)	2,182 (0.2)	2,197 (2.6)	2,202 (2.1)	2,205 (2.4)	2,202 (1.8)	2,233 (2.3)	2,231 (2.0)	2,235 (1.9)	2,25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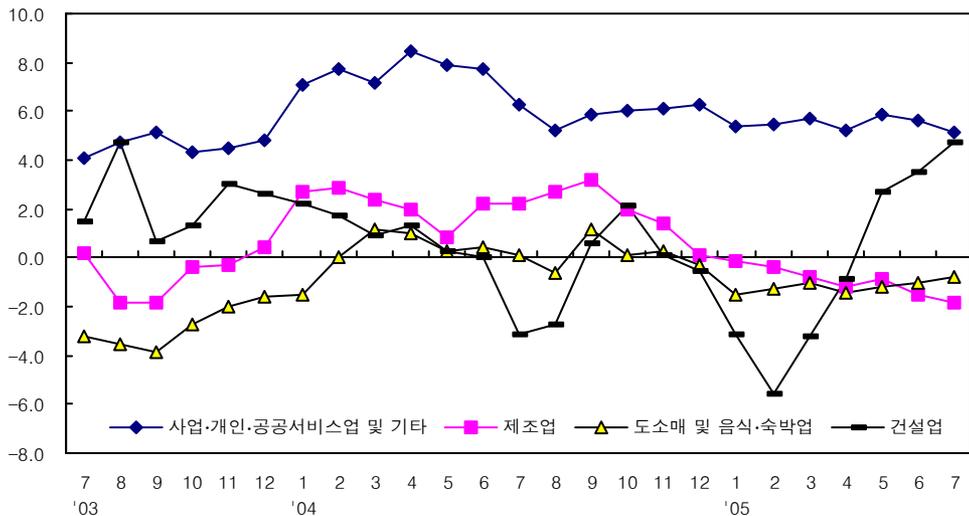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7월 고용동향』, 2005. 8.

〔그림 6〕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증가세 지속, 36시간 미만 취업자 감소

- 2005년 7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812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4천명(1.6%)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3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0천명(2.1%) 증가
 - 임금근로자가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2005년 2월 이후 일용근로자의 증가가 대폭 상승함(그림 7 참조).
 - 두달 연속 비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고, 이는 자영업주의 증가에서 기인함.
 - 상용직 중심으로의 근로자 이동이나 임시근로자의 계속된 감소는 좋은 현상이나 일용근로자의 증가로 고용의 질 문제가 우려되며 감소된 임시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나 일용근로자로 축적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함.
- 2005년 7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6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9천명(-8.6%)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232천명으로 759천명(3.9%) 증가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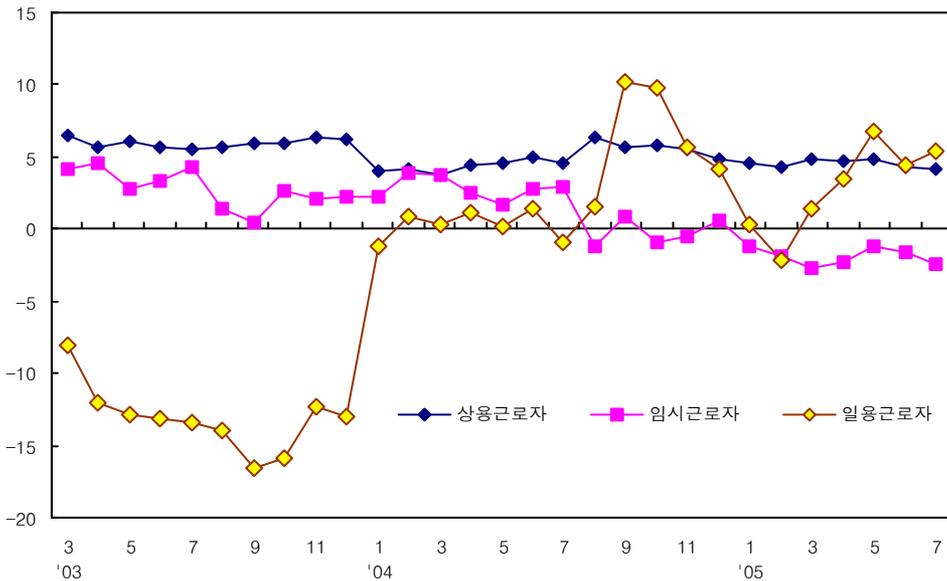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3/4분기
전 체	22,104 (2.2)	22,744 (2.0)	22,647 (1.6)	22,750 (1.3)	22,733 (1.8)	22,247 (0.6)	23,126 (1.7)	23,199 (2.0)	23,246 (1.9)	23,184 (1.9)
비임금근로자	7,490 (0.3)	7,762 (-0.4)	7,769 (-2.1)	7,688 (-2.1)	7,631 (-1.5)	7,391 (-1.3)	7,772 (0.1)	7,798 (0.0)	7,844 (1.0)	7,812 (1.6)
자영업주	6,001 (2.3)	6,136 (1.9)	6,177 (0.1)	6,111 (0.5)	6,126 (0.2)	6,022 (0.4)	6,210 (1.2)	6,221 (1.1)	6,261 (2.0)	6,246 (2.2)
무급가족 종사자	1,489 (-7.0)	1,626 (-8.2)	1,593 (-9.9)	1,577 (-11.3)	1,505 (-8.0)	1,368 (-8.1)	1,562 (-3.9)	1,577 (-3.9)	1,583 (-2.5)	1,566 (-0.7)
임금근로자	14,614 (3.2)	14,983 (3.3)	14,878 (3.6)	15,063 (3.2)	15,102 (3.6)	14,856 (1.7)	15,354 (2.5)	15,401 (3.1)	15,401 (2.3)	15,372 (2.1)
상용근로자	7,460 (4.0)	7,586 (4.6)	7,671 (5.5)	7,569 (4.6)	7,781 (5.4)	7,803 (4.9)	7,936 (4.6)	7,971 (4.9)	7,931 (4.3)	7,889 (4.2)
임시근로자	5,067 (3.3)	5,199 (2.3)	5,035 (0.9)	5,303 (2.9)	5,026 (-0.3)	4,968 (-2.0)	5,112 (-1.7)	5,107 (-1.2)	5,144 (-1.6)	5,173 (-2.4)
일용근로자	2,087 (0.0)	2,197 (0.9)	2,172 (3.5)	2,191 (-0.9)	2,295 (6.5)	2,085 (-0.1)	2,306 (4.9)	2,323 (6.8)	2,326 (4.5)	2,310 (5.4)
36시간 미만	2,587 (0.8)	2,509 (27.9)	2,687 (-10.0)	2,887 (-3.4)	2,501 (5.5)	2,757 (6.7)	2,411 (-3.6)	2,389 (3.3)	2,326 (0.7)	2,638 (-8.6)
36시간 이상	19,125 (0.8)	20,004 (-0.8)	19,563 (3.6)	19,473 (1.7)	20,000 (1.4)	18,783 (-1.8)	20,473 (2.3)	20,572 (1.8)	20,666 (2.0)	20,232 (3.9)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5년 7월 고용동향』, 2005. 8.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30대, 중졸 이하 실업률 감소

- 2005년 7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22천명(-0.3% 포인트)이 감소했으나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증가
 - 청년층(19~29세) 실업률은 8.3%(0.4%포인트)로 대폭 증가하였고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소폭 상승
 - 7월 중 교육정도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중졸 이하 14천명이 감소했고 실업률도 2.5%로 0.3%포인트 감소했으나, 고졸은 24천명이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0.2%포인트 증가한 4.7%를 기록하였으며, 대졸 이상은 12천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 2005년 7월 중 전체 실업자 888천명을 전직유무별로 보면 신규실업자는 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하나 전직실업자는 840천명으로 23천명 증가
 - 전직실업자 중 이직한지 1년이 안된 실업자는 6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이직한지 1년 이상 된 전직실업자는 173천명으로 28명이 증가함.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4/4분기			5월	6월	
전 체	931(4.0)	831(3.5)	835(3.6)	865(3.7)	842(3.6)	975(4.2)	878(3.7)	852(3.5)	878(3.6)	888(3.7)
15~29세	472(9.3)	402(8.1)	374(7.5)	405(7.9)	400(8.1)	448(9.0)	377(7.8)	360(7.4)	376(7.8)	416(8.3)
30~39세	193(3.0)	186(2.9)	204(3.2)	203(3.2)	201(3.2)	224(3.6)	200(3.2)	196(3.1)	191(3.0)	181(2.9)
40~49세	159(2.5)	138(2.2)	152(2.4)	149(2.3)	141(2.2)	182(2.9)	165(2.5)	162(2.5)	167(2.5)	164(2.5)
50~59세	79(2.4)	77(2.2)	78(2.3)	79(2.3)	78(2.2)	94(2.7)	94(2.5)	88(2.4)	96(2.5)	90(2.4)
60세이상	28(1.4)	29(1.2)	27(1.2)	28(1.2)	23(1.0)	23(1.3)	42(1.6)	46(1.8)	48(1.8)	37(1.5)
중졸이하	155(2.7)	141(2.3)	153(2.6)	165(2.8)	144(2.4)	169(3.1)	161(2.7)	162(2.7)	164(2.7)	151(2.5)
고 졸	495(4.9)	423(4.2)	443(4.3)	468(4.5)	478(4.7)	528(5.2)	444(4.3)	425(4.1)	460(4.5)	492(4.7)
대졸이상	280(3.9)	268(3.6)	239(3.3)	233(3.2)	220(3.0)	277(3.7)	273(3.5)	265(3.4)	254(3.3)	245(3.2)
신규실업자	86	52	32	48	40	60	41	37	36	48
전직실업자	845	779	803	817	803	915	837	815	841	840
1년 이상	158	141	129	145	144	175	179	182	183	173
1년 미만	687	638	674	672	659	740	658	633	658	667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

자료: 통계청, 『2005년 7월 고용동향』, 2005. 8.

임금 동향

◆ 2005년 5월 임금상승률, 전년보다 낮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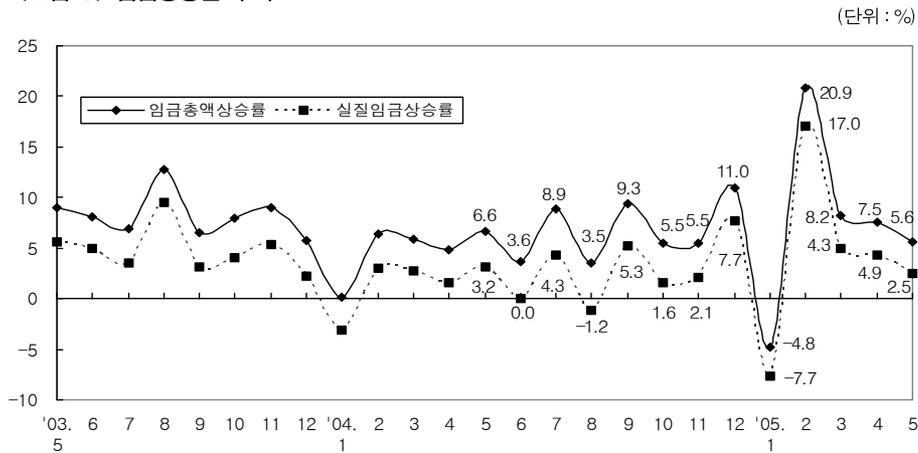
○ 2005년 5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101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6% 상승

- 이는 전년동기의 임금총액 상승률 6.6%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임.
- 1~5월 임금총액은 2,28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 상승
- 2005년 5월 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정액 급여 및 초과급여 상승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반면, 특별급여 상승률이 -7.3%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낮은 임금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규모별로는 100~2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 등이 주요 원인임.

○ 실질임금은 2.5% 상승

- 2005년 5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2.5% 상승함.
- 1~5월의 실질임금은 1월 실질임금이 7.7% 하락한 영향이 지속되어 임금총액 상승률보다는 낮은 3.8%의 상승률을 기록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원/월, 2000=100.0, %)

		2004				200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1~5월
						3월	4월	5월		
임금총액	2,255 (6.0)	2,185 (3.9)	2,115 (5.0)	2,324 (7.3)	2,399 (7.7)	2,348 (7.5)	2,248 (8.2)	2,268 (7.5)	2,101 (5.6)	2,283 (7.1)
정액급여	1,636 (6.8)	1,599 (7.0)	1,613 (6.6)	1,643 (6.9)	1,690 (6.7)	1,726 (8.0)	1,724 (7.4)	1,722 (7.7)	1,735 (7.4)	1,727 (7.8)
초과급여	137 (1.7)	132 (3.1)	138 (2.5)	137 (2.5)	143 (-1.0)	142 (7.8)	148 (12.8)	150 (10.3)	151 (6.6)	145 (8.0)
특별급여	482 (4.6)	455 (-5.4)	364 (-0.5)	544 (9.8)	566 (13.3)	480 (5.7)	375 (9.9)	397 (5.7)	215 (-7.3)	410 (4.1)
실질임금지수	117.9 (2.3)	115.5 (0.6)	111.1 (1.6)	120.5 (2.9)	124.5 (4.1)	120.3 (4.2)	114.4 (4.9)	115.4 (4.3)	107.0 (2.5)	116.7 (3.8)
소비자물가지수	114.7 (3.6)	113.4 (3.3)	114.2 (3.3)	115.6 (4.3)	115.5 (3.4)	117.0 (3.2)	117.8 (3.1)	117.9 (3.1)	117.7 (3.1)	117.3 (3.2)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5년 7월, 협약임금 인상률 및 진도율은 전년보다 낮게 진행

- 협약임금 인상률, 전년동기보다 0.8%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5년 7월 31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7%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5.5%보다 0.8%포인트 하락
 - 이 중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전년동기의 5.7%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4.0%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2.9%에 비해 상승
 - 전년보다 낮은 협약임금 인상률은 2005년 7월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전년보다 낮게 타결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5년 7월 31일 현재)

(단위: 개소, %)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6,228 (5,909)	2,250 (2,380)	36.1 (40.3)	4.7 (5.5)
민간부문	6,024 (5,727)	2,211 (2,338)	36.7 (40.8)	4.7 (5.7)
공공부문	204 (182)	39 (42)	19.1 (23.1)	4.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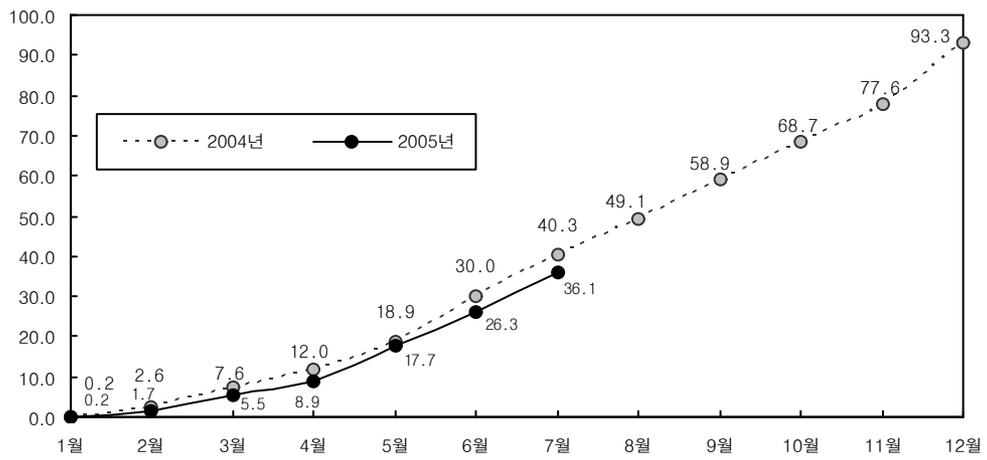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 임금교섭은 전년보다 느리게 진행 중
 - 2005년 7월 31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 중 2,250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전년동기(40.3%)보다 낮은 36.1%의 진도율을 기록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36.7%로 6,024개소 중 2,211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204개소 중 39개소가 타결되어 19.1%의 진도율을 기록

[그림 9]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4, 2005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